

수신 : 원장

참조 : 경영본부장, 센터소장, 동북아팀장

<중국경제동향보고 2002-02>

2002. 1. 11

KIEP 북경사무소

중국, 금년부터 농업개혁 본격 착수

□ 중국이 WTO 가입에 따른 경제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WTO 가입 첫 해인 금년부터 농업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두청린(杜青林) 농업부장이 지난 3일 밝혔다.

- 중국 정부는 농업부문 내부 개혁으로는 곡물 위주의 농업구조 조정,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전체 경제개혁의 차원에서는 농촌의 도시화 및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을 통한 생산성 및 소득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WTO 가입 후 중국 농업이 직면한 난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 대책도 있지만, 이보다는 전반적인 경제구조조정과 농업개혁의 조화로운 추진을 통한 농업 및 농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임.

- 곡물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로 밀, 옥수수, 대두 등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농산물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곡물 판매가격을 수입원가보다 낮게 유지하였음을 감안하면, 소폭의 관세인하가 곡물수입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WTO 가입 이후 도시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도·농간의 불균형이 더욱 확대된다면, 농촌경제의 상대적인 낙후가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에 큰 부담이 될 것임.

- 금후 도시부문은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개방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반면 농촌부문은 단기적으로 과잉노동력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현상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존의 도·농간 소득 격차(3.5 : 1)가 더 확대될 가능

성이 있음.

- 따라서 금후 중국 농업은 관세인하라는 시장개방의 1차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도시와의 격차 확대라는 2차적인 충격을 더욱 염두에 두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한편, WTO 가입이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에 대한 파급효과를 비교·정리하면 <표 1>과 같음.

- 쌀과 과일의 경우 향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소맥, 옥수수, 대두 등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1>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농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구분	중국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 대한 파급효과
쌀	- 국제가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수입 증가 가능성 낮음. - 타 곡물 재배농가의 전업에 따른 생산량 증대 예상. - 인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용 쌀 재배 증가	- 동북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수입 증가 예상
소맥	- 수입장벽의 인하로 수입 증가 예상 - 종래의 북미지역에서 호주, 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입대상국 다변화 - 중국내 가격시스템과 개방스케줄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적으나, 장기적으로는 불리	- 중국산 소맥의 생산비가 국제가격보다 높아 수입 가능성은 낮음
옥수수	- 생산원가가 국제가격보다 높아 수입증가 예상	- 수입 증가 가능성 낮음
대두	- 현재에도 생산부족 상태이고, 생산품의 질도 떨어져 수입 증가 예상	- 수입 증가 가능성 낮음
과일	- 곡물재배 농가의 상당수가 과일농사로 전업이 예상되며, 잉여 생산품에 대한 인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 - 생산비용 측면에서 국제경쟁력 높음	- 중국이 과일의 유통 및 저장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수입 급증 예상

자료: KIEP 북경사무소 작성

1. 2001년도 무역액 5,097억 달러 기록

- 중국세관에 따르면 2001년도 수출입총액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5,097.7억 달러이며, 수출은 6.8% 증가한 2,661.6억 달러, 수입은 8.2% 증가한 2,436.1억 달러로 무역흑자는 225.5억 달러를 기록함.

- 2001년도 수출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월간 수출증가율이 U자형 패턴을 보였으며, 연말 무역흑자가 늘어났음.

- 2001년 1/4분기 수출증가율이 연간 최고인 13.7%를 기록한 다음 줄곧 낮아져 10월말까지 6.1%로 하락했지만, 11월, 12월 수출총액은 각각 240억 달러와 245억 달러로 다시 상승하였음.
- 동 시기 수입 증가율은 지속적 하락세를 보여 누계 수입증가율은 1/4분기 말의 17.2%에서 연말의 8.2%까지 하락해 연간 무역흑자가 225.5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게 함.

② 일반무역과 가공무역 수출이 모두 증가함.

- 2001년도 일반무역 수출은 6.4% 증가한 1,119.2억 달러, 가공무역 수출은 7.1% 증가한 1,474.5억 달러이었음.

③ 일반무역 수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 가공무역 수입 증가세는 완화됨.

- 2001년 일반무역 수입은 13.4% 증가한 1,134.7억 달러, 가공무역 수입은 1.5% 증가한 939.8억 달러로 수입총액에 각각 46.6%, 38.6% 차지함.

④ 주요 무역파트너에 대한 무역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

- 연속 9년간 중국의 최대 무역대상국인 일본은 지난해 양국간 무역마찰로 인해 무역증가율이 5.5%에 그쳤음(수출은 449.6억 달러(7.9% 증가), 수입은 428억 달러(3.1% 증가)).
- 대미 수출은 4.2% 증가한 542.8억 달러, 수입은 17.2% 증가한 262억 달러로

280.8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

- 대 EU 교역은 11% 증가한 766.3억 달러로 수출은 7.1% 증가한 409.1억 달러, 수입은 15.8% 증가한 357.1억 달러이었음.
- 이외 한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각각 125.2억 달러(10.9% ↑), 27.1억 달러(21.4% ↑)를 기록

⑤ 품목별로는 기계전기제품 수출은 크게 늘어났으나, 방직, 신발 등 전통적인 수출품목은 부진하였음.

- 2001년 중국 기계전기제품 수출은 12.8% 증가한 1,187.9억 달러로 수출총액에 44.6% 차지하고 수출 증가액은 전체 수출증가액의 80%를 차지함.
- 반면, 의류 및 신발류는 각각 1.5% 및 2.5% 증가에 머물렀고, 완구류는 7.5% 감소하였음.

⑥ 수입품의 경우 원자재 수입은 소폭 감소하고 공업 완제품 수입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함.

- 원자재 수입은 2.1% 감소하였으며, 완제품 수입은 10.9% 증가하였음. 특히 기계설비의 수입이 17.8% 늘어났음. (國際商報, 2002. 1. 11.) (***)